



반산스님의

경전읽기

화엄경②

지난번 부처님 열반재일에 삼패한 소식 하나가 우리들에게 희망을 갖게 하였다. 3년 동안 무문관 수행을 하시던 어느 대덕스님이 회향식을 가지려 하니, 1500여 불자가 모여 축하의 자리를 마련하려 하였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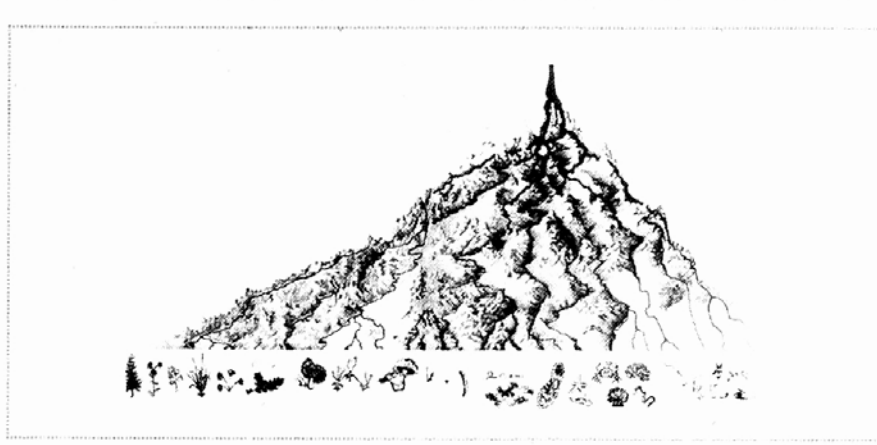
선사할 "세상의 관심이 줄었을 때 조용히 나오겠다"고 하시며, "관심일법(觀心一法) 총섭제행(總攝諸行)"이라고만 이르셨다는 내용이다. 무문관 수행이라도 우리 가풍에서는 밥 먹고 발우 닦는 일상사에 지나지 않는데 따로 보여줄 게 없다는 것이다. 봄이 오면 꽃은 피고, 해가 뜨면 발에 나 가 일하는 일상사 속에 모든 깨우침의 소식이 다 들어있을 것이다.

화엄의 본질도 바로 여기에 있다. 눈을 부라리고 노력하는 것은 성이 낫다는 표시이며, 급하다고 교통규칙을 어기는 것은

차서 보리나무 아래서 정각이 루고 / 중생들을 제도하려 몸을 나타내 구름처럼 오는 세상 끝없이 가득하다."

"중생들의 의심은 모두 끊으며 넓고 크게 믿고 믿음에 내게 하시며 / 그치않는 괴로움 달게 하시며 부처님의 즐거움 얻게 하네."

화엄에서는 광명의 수를 헤아릴 수 없어 광명은(光明雲)이요, 공양 역시 공양운(供養雲)이다. 그래서 대중이 많이 모인 것을 운집대중(雲集大眾)이라 하니 <화엄경>에서 나온 표현이다. 이 즈음 세존께서는 모든 보살들의 마음을 알아보시고 입과 치아에서 한없는 광명을 뿜어내신다. 화엄에서는 모든 수행자를 보살대중이라 일컫는다. 또 <화엄경> 80권에 열 번 이상의 방광(放光)을 볼 수 있는데, '현상품'에서는 두 번의 광명을 보이신다. 치아 속에서 광명이 나오고, 눈썹 사이에서 광명이 나온다는



인간중심 사고 환경위기 불러

불교와 과학 <23>

생명의 평등

지구상의 생명의 역사는 35억 년이라는 시간에 걸쳐 자연의 책을 써왔다. 그런 자연의 책은 최초의 아마노산 유기성분의 성립에서부터 영장류의 최고라고 하는 오늘날의 인간종에 이르는 긴 생명의 역사를 담고 있다. 그런 생명의 역사 속에서 개별 생명체는 나름대로 환경에 대한 관계와 섭동을 거치면서 불확실한 미래를 향해 그저 어디로 흘러갈지 모르는 표류하는 존재였다. 표류하는 가운데 삼엽충같은 생명종은 2억 년 전에 이미 진화의 역사 너머로 사라져 버렸지만, 아메바나 도마뱀 같은 생명종은 끈질긴 관계와 섭동의 역사를 이어왔다.

그렇게 진화의 표류는 지금도 진행 중이다. 여전히 방향과 끝을 모른 채 생명의 진화는 표류하고 있다. 그런 시간의 진행 속에서 오늘날 남아 있는 생명종들은 식물과 동물로 갈라졌고, 양서류나 포유류 등으로 갈라져 진화의 종착점을 서로 달리 하고 있다. 어떤 이들은 이런 결과를 두고 식물은 동물보다 진화적으로 우월하고, 포유류는 양서류보다 우월하다고 너무 쉽게 이야기한다. 이런 생명종의 우위비교는 인간종의 아주 못된 습관 중의 하나이다. 인간인 '나' 만이 진화적으로 가장 우월한 영장류 중의 영장류이니 내 마음대로 해도 괜찮다는 심보와 같다. 인간의 이런 못된 심보는 생명 진화에 대한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되었다.

진화거쳐 똑같이 살아남은 생물 다른 종보다 우월한 생명없어

방향감각이라는 고도의 적응력을 갖추게 되었다. 펜곤과 물 표범은 두터운 지방피부를 가짐으로써 매서운 추위에 적응하게 되었다. 그리고 생명종의 하나인 인간은 인위적인 옷과 불을 만들어서 겨우 추위에 적응할 수 있었다.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생물분류학의 하나는 계통발생학에 관한 것이다. 35억 년 진화의 시간동안 최초 유기체 성분이 모여서 단계로 원핵생물체를 만들고 이것이 진화하여 진균류로, 이어서 수생동물로 이어지고 수생동물은 양서류로 진화하다가 파충류로 이어지고 파충류에서 시조새나 혹은 후일 포유류로 되었다가 영장류로 진화하고, 그리고 나서는 최종적으로 인간종이 성립되었다는 것이다. 이런 설명은 진화의 가치가 단 하나일 뿐이라는 가설 위에만 성립한다. 그리고 이런 생각 때문에 인간이 최고라는 우월적 지위를 못 버리고 있다. 그러나 진화의 나무는 단 하나만의 가치를 갖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가치를 내면서 오늘에 이르렀다. 그래서 현존하는 모든 각각의 생명종들은 진화의 과정이 아니라 진화의 완성된 결과이다.

예를 들어보자. 민둥산 산꼭대기에서 물방울을 계속 떨어

뜨린다고 하자. 그러면 꼭대기의 물방울들은 처음에 같이 흐르다가 금세 나뉘어져 길을 달리한다. 순전히 우연적인 방식으로 물방울들의 흐름은 계속 갈래를 치고 다시 갈래를 쳐서 마지막 바닥에 와서 갈래치기가 끝날 것이다. 이러한 물방울의 갈래치기 흐름이 바로 물의 표류이다. 이를 생명 진화에 비유시킨다면 물길의 다양한 갈래치기 분화현상이 바로 진화의 표류이며, 그 결과는 새로운 생명종의 탄생이다. 그리고 그 마지막 도착지는 바로 오늘 현존하는 생명종들의 현주소가 된다.

그래서 오늘이라고 하는 진화의 도착지에 도달한 현존하는 모든 생명종 혹은 생명개체들은 누가 더 우월하거나 저급하다고 말할 수 없다. 그들은 모두 자연의 험한 환경 속에서 똑같은 진화의 섭동과정을 거쳤기 때문이다. 오늘날 인류뿐만 아니라 지구 전체를 위기에 빠뜨리게 하는 것. 그것은 바로 환경위기이다. 그런 위기를 자초한 것은 결정적으로 인간중심적인 인간 이기주의에서 연유하며 이는 곧 인간을 제외한 다른 생명에 대한 천시에 있다. 무수히 많은 생명개체들이 오늘날 어떻게 진화했는가에 대한 앞서의 이야기를 잘 새기거나 해도 아마도 인류가 안고 있는 위기를 벗어날 수도 있을 텐데... 유정세간을 포함하여 모든 생명은 평등하다. 도법스님이 한 말을 인용해본다. "생명 위에 생명 없고 생명 아래 생명 없다."

최종덕/상대교수 (jdchoi@chiak.sangji.ac.kr)

"여러 종교 가지니 유익하고 즐거워요"

지구촌 불교 / 獨 1인 다종교 불

독일인들이 1인 1종교의 틀을 깨고 다양한 종교를 가지고 있다. 디에피(DAP) 통신에 따르면 독일인들이 에조테릭(Esoteric)과 같은 영적 체험에 커다란 관심을 보인 나머지, 전통 종교의 신자 수가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

특히 독일에서 성공가도를 달리는 사람들이 이 같은 체험을 추구하는 주요계층으로 자리잡으면서 기존의 종교 질서를 흔들고 있다.

예를 들면 쾰른시에 사는 빌리안 여성은 중국의 태극권을 연습하면서, 일본에 한 번씩 명상 캠프에 참가하고, 동시에 인디언 추장의 생활지도 세미나를 찾아가는 등. 그녀는 이런 경험을 통해 신에 더 가까워졌다고 느끼고 있다.

실지어 중년의 어느 여사는 교회 성가대에 속해 있으면서 명상을 배우고, 수피 인디언 교사를 정기적으로 만난다. 그녀의 침대 머리맡에는 성경이 놓여 있지만, 음식은 인도의 베다 요리방법을 따라 만든다.

비밀스런 의식을 뜻하는 '에조테릭' 관련 서적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함부르크시의 레이저(wrage) 서점은 3만 명의 단골 손님 카드를 보관하고 있는데 이들 중 1만 명 정도는 서점이 주최하는 세미나에 참석할 정도로 골수 회원이다.

기존 종교 식상 타 종교 체험 늘어

기독교인 태극권 배우며 인도 명상

서점 주인 립 씨는 에조테릭의 성공 요인으로 다음 두 가지를 꼽았다. 첫째는 삶에 도움이 된다는 것, 둘째는 재미있다는 것이다. 기존의 종교가 에조테릭과 경쟁할 수 없는 부분이 바로 재미 부분이다. 다시 말해 독일인들이 전통 종교의 진지함이나 경건함보다는 재미나 즐거움이 결합된 영적 체험에 끌린다고 있다는 것이다.

독일에서 지난 2년 사이 공식적으로 기독교를 탈퇴한 사람만 60만 명에 이른다는 사실이 이러한 상황을 잘 예시해 준다. 디에피 통신은 이러한 상황의 원인을 "사회가 효율성을 추구하고 개인이 단자화(單子化) 될수록 인간적인 따뜻함이나 영성의 체험 욕구는 더욱 커진다"는 종교심리학자의 진단에서 찾고 있다.

다시 말해, 독일인들은 이런 내면의 빈 공간을 채우기 위해 다른 종교, 또는 상이한 초월적 체험의 가능성으로 시선을 돌리고 있는 셈이다.

프라이부르크의 종교심리학자 에버츠 씨는 이러한 현상을 "종교적인 것의 분산"으로 정의한다. 독일과 같은 후기산업사회에서는 종교도 삶의 스타일만큼이나 다원화하며, 이에 따라 종교의 특정 욕구는 불가능한 소원에 지나지 않는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비판적 기독교 신자인 종교사회학자 외르크 씨는 "기성 종교는 신자의 수가 줄어드는 것을 한탄할 것이 아니라, 현대인들이 찾는 종교성을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디에피 통신은 결론에서 "종교는 일상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공동체적 경험과 영적 체험 등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채워줄 수 있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오종욱 기자(gobaou@buddhapia.com)

보살행이 곧 성불의 길

부처님 안계신 곳 없어 "처처법당 사사불공"

그 사람의 마음을 그대로 보여 주는 것이니, 불단에 올리는 과일 한 접시, 공양 한 그릇도 정성을 다해야 하리라.

<화엄경>은 부처님의 성불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여기에는 세상의 수많은 수행자들이 부처님의 성불을 계기로 함께 모여 자신의 수행담, 얻은 바 경계를 계승으로 삼아 부처님을 찬탄하고 있다는 내용이 나온다.

그리고 <화엄경> 전편을 통하여 크게 두 가지 관심사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첫째, 중생을 어떻게 제도할 것인가? 곧 보살행을 어떻게 뒤을 것인가? 이고 둘째, 수행을 어떻게 하여 성불할 것인가? 곧 보살행을 잘 따는 것이 곧 성불의 길임을 한결같이 옹변하신다.

이제 다음으로 둘째 품인 '여래현상품'으로 이어보자. 찬탄을 마친 대중들의 마음속에 몇 가지 의문이 일고 있었다. 이런 의문점을 품고 있을 때 또 공양구 속에서 노래가 흘러나온다. 계승으로 법문을 청하는 장면이다.

말이다. 경문을 보자.

"그 때 세존께서 모든 보살들의 생각함을 아시고 입과 치아로써 세계의 티끌 수처럼 많은 광명을 놓으셨다. ... 그 때에 좋은 음성을 가진 보살이 대중 가운데서 부처님의 위신력을 받들어 시방을 살펴보고 계승으로 말하였다. 부처님 몸은 법계에 가득하시니 간 곳마다 중생 앞에 나타나시며 인연 따라 끌고루 나아가지만 언제나 바라좌(傍提座)에 항상 계신다. 여래께서 바라좌에 앉아 계신데 한 티끌에 많은 세계 나타내시며 티끌 하나하나에 나타내도 그와 같으니 이렇게 온 법계에 계시는구나."

아주 유명한 계승이다. 부처님의 몸이 아니 계신 데 없으니 선 자리에서 함정하고 염불하면 감응이 내리신다. 처처법당(處處法堂)이요 사사불공(事事佛供)이다. 영상으로 부처님을 모셔놓고 인터넷으로 일하면 기도기도 할 수 있고, 유명한 서도기도 아니라도 정성만 지극하면 영험을 얻을 수 있으리라.

법선사 영명학원 연구원

四柱命理學의 限界를 克服시킨

六壬來情秘法

(易術活人天役者用) 神示出刊

★대방인에게 던질 첫 말을, 초사(招辭)란에 송곳같이 적시(指示)해 놓았습니다.

★해당 국수(國數)에, 물어 오는 내용을 23가지 용건별(用件別)로 채출(採出)시켜 놓았습니다.

이 책은, 입문서가 아닌 천역자용으로서 즉시적 효용에 중점을 두어 난해한 육임을 따로 연구할 필요없이, 펼쳐 보기만하면 순간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 놓았음은 물론, 四柱로는 판단이 안되는 각종 육임비법들을 요약·정리, 수록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월화관이나 사할이나 무속점에 사람이 들어서거나 전화했거나, 어디를 가서 만났을 때, 출생년월일시를 묻지 않고도 그 시간만 보아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알아 버릴 수 있게끔 정리해 놓았습니다. 이를테면,

- 무슨일 때문에 왔는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이미 일어났는지, 앞으로 일어날 일인지, 언제 일어날 것인지, ●자기가 저지른 일인지, 남에게 당한 일인지, ●그 일이 잘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첫마디를 어떻게 하면 적절할 것인지(이는 초사란에 적혀 있습니다.)

등에 대해 아주 쉽게, 들여다만 보면 알 수 있도록 摘示해 놓아, 미리 그 情況을 지적하므로써 來人의 顔色과 자세를 바꾸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日常生活에서 간단하게 어느 때, 어느 장소에서든 形而上學으로서의 「카리스마」를 유지하고, 존경·귀의 받을 수 있는 비법들은,

▶ 상담(相談)내용에 대해 즉시 답변(答辯)할 수 있는 항목들을 아래와 같이 채출(採出)시켜 놓았습니다.

- 희망사 · 승진사 · 구재사 · 시험사 · 구직사 · 결혼사 · 임신사 · 가정사 · 이주사 · 소송사 · 질병사 · 매매사 · 여행사 · 도난사 · 심인사 · 상면사 · 채용사 · 투자사 · 승부사 · 가격사 · 농경사 · 묘지사 · 기후사

- 약속인이 올지, 안올지
- 돈이 될지 안될지, 된다면 언제 누구로부터 될지,
- 매매가 될지 안될지, 된다면 언제 될지,
- 일태아가 남아인지, 여아인지, 수술해 날 아이인지,
- 혼인이 성립될 것인지 안될 것인지,
- 선한 사람인지, 악성인인지,
- 부탁한 건이 이루어질 것인지, 속을 것인지,
- 이사 방위는 어느 쪽이 좋을 것인지,
- 계획사가 잘될 것인지,
- 찾아갈 사람이 집에 있을 것인지, 없을 것인지,
- 치료될 수 있는 병인지, 못 고칠 병인지,
- 분실물을 찾을 수 있을지 없을지, 어디에 있을지,
- 어느 방위로 도망가야만 안전할 것인지,
- 여행이 좋을 것인지, 나쁠 것인지,
- 승부사에 이길지, 질지,
- 온 사람을 재워야할지, 재워서는 안될 것인지,
- 상대가 나에게 이익이 될 사람인지, 해가 될 사람인지,
- 내일 비가 올 것인지, 안 올 것인지,

등에 대해서도 즉시 딱부러지게 말해줄 수 있도록 간추려 놓았습니다. 특히 본문에는 60甲子 매일 매시간별로 來人의 사정을 採出해 놓아, 만나거나 전화한 시간만 보면 그 상황이 환히 드러나게 되어있고, 居所를 떠나 부재중일 때는 1시간 후든, 하루 후든, 일출 후든, 1년 후의 어느 때라도, 찾아온 사람의 來應 및 事情을 미리 날짜와 시간별로 예시해 놓을 수 있어, 가히 神通의 경지를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책은 예사로운 책이 아니고, 五行 또는 法力과 神明의 경지를 유감 없이 과시할 수 있는 神靈·神示가 담겨진 책이므로, 일반인에게 弄斷되지 않도록 음양오행·무속인·스님 등 活人專門天役者의 개인 주문만 받고 있습니다.



- 책 값: 삼십오만원(₩350,000)
- 책 질: 영구 보관용으로 제작(책크기는 가로21cm×세로30cm)(흑색 표지·양장제본·금박·2000페이지·미색용지·유펜인쇄)
- 입금처: 한빛은행 066-475024-02-001 김 나 려
- 배 달: 입금후 전화하시거나 우편환 송금하시면 즉시 택배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 전 화: (02)993-8680
- 주 소: 서울시 강북구 수유3동 190-49호 일심빌딩 401호

도서출판 북문 대표 김 나 려

· 출판사등록번호 강북 제9-00076호
· 사업자등록번호 도봉 210-90-48989

책값이 他 易書에 비해 비싸기는 합니다만 천역자용이므로, 이책을 활용하여 획득 될 명성과 학문성취감에 비하면 매우 싼 값에 될 것임을 주지해 드리 는 바입니다. 내용이 실망되실 때는 즉시 대금을 반환하겠습니다. 본책 휴대용은, 본책을 구입하신 분에 한해 50,000원에 보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비법들을 아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매일·시(每日·時)별로 적시하여 놓았으나, 그래도 후, 의문되시는 점이 있을 때는 전화하십시오. 저자인 敝 卜子 曉史선생님과 연결하여 친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서출판 卜 問 율림

전 내용이 한글에 한문 토(土)가 달려 있어 누구라도 쉽게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책은 공부하는 책이 아니고, 보고 말하면 되는 책입니다.

매달 마지막 일요일 오전 10~17까지 총섭명회를 갖고 있습니다. 참석하시면 이 책을 더 쉽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책을 함께 보실 수 있는 요령이 녹화테이프로 제작되어 있으니 필요하신 분은 주문하십시오.